

## 이슬람권의 반미·반서구 시위

: 박재은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 2012년 10월 5일

### ■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 '무슬림의 무지(Innocence of Muslims)'에 격노하여 이슬람권 전역에서 반미·반서구 시위를 벌이고 있음.

- 9월 초 이집트의 한 방송에서 무함마드를 살인자, 아동성폭행범, 동성애자 등으로 묘사한 이 영화를 비난한 것을 계기로 중동지역 무슬림들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SNS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됨.

- 9월 11일 발생한 첫 시위로 리비아 주재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미 대사가 사망한 이후 중동을 비롯한 아프리카·아시아·유럽 등지로 반미 시위가 확산되어 50명 이상이 사망함.

o 수단 시위대는 미국·영국·독일 대사관저를 공격했으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소재 영국군기지 캠프 배스티언(Camp Bastion)을 공격하는 등 반서구 시위의 성향도 보임.<sup>2)</sup>

### ■ 현재 영화제작자로 알려진 나쿨라 바슬리 나쿨라(Nakoula Basseley Nakoula)는 보호관찰 규정 위반 혐의로 로스엔젤레스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

- 미국에 거주 중인 이집트인 콥트교도 나쿨라는 2010년 금융사기죄로 복역하였으며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으나 신분을 위조하고 관찰관의 허락 없이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수감되었음.<sup>3)</sup>

- 이집트 검찰 또한 영화제작 및 예고편 유통에 관여한 이집트인 콥트교도 7명을 이슬람 및 예언자를 모독하고 종파분쟁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하였음.

o 한 영화관계자가 9월 초 미국 및 이집트 언론사에 해당 영상의 YouTube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9.11' 11주년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행동으로 해석됨.

### ■ 시위 초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반미 감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1) 시위가 발생한 국가는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영국, 호주,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수단,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등이 있음.

2) 당시 캠프 배스티언에는 영국의 해리 왕자가 전투용 헬기 부조종사로 복무 중이었음.

3) 이집트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교(Copt)는 이집트 인구의 10%가 신봉하는 소수 종교이며 일부 극단적인 무슬림들과 종교 분쟁을 겪고 있음.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반미·반서구 시위를 선동하며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 탈레반과 알 카에다 지도자들은 미국 대사관 공격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6년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하여 9월 한 주를 ‘분노의 시위’ 기간으로 선언하고 반미 시위를 격화시킴.
- 파키스탄 현직 철도부 장관은 이슬람 모독 영화 제작자를 살해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해당 영화를 '표현의 자유'로 보는 서구와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보는 이슬람권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구글은 영상 내용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을 거부함.
- 최근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게재하였고, 뉴욕 지하철에 지하드(jihad) 비하 광고도 게시되어 반미·반서구 감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